
도자 문화에 대한 활성화 정책연구

-도자 공방을 중심으로-

김성민*

The Enable policy research on ceramic culture

Sung-Min Kim*

요 약 문화는 공급하는자와 수요자와의 감정의 공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요자가 그 코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문화의 형성을 불가능하다. 이에 활발한 도자 문화의 보급은 교육의 힘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도자 문화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재정비 필요하다. 시대적 지역적인 도자공예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 방법이나 활성화 방안으로 공방운영에 교육의 중요성을 토대로 도자문화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문화, 도자공방, 교육, 도자공예문화, 활성화

Abstract Those who supply the consumer with the culture and the sharing of feelings can be. The code to be read correctly by the consumer unless it is impossible the formation of the culture. The dissemination of this vibrant ceramic culture is the power of education can be. In this sense, our ceramic culture also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overhaul is needed. Times the local ceramic arts in order to become as a culture, above all, education and activation are required. We run workshops in teaching methods and ways to activate based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ceramic culture is suggested.

Key Words : Culture, pottery workshops, training, Ceramic culture and enabl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제성장을 거듭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문화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제의 발전은 곧 시간의 여유를 가져다주었으며, 여가문화를 즐기려 하고 있다.

즉,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지향에서 또 다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자연스런 일상의 한 부분으로 문화적 여유를 통한 공방교육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 증대한 도자공방의 기능은 바로 이 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공방의 기능은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 받을 수 없었던 여러 혜택을 수용하여 소수 계층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취미생활

을 일반화, 보편화시켰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보내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잃어버렸던 자신과 자아를 찾기 위한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자문화의 측면에서 본 공방은 역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도자공예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소수였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문인의 양성이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도자공예 문화로서의 발전도 가져왔기 때문이다. 사회참여라고도 볼 수 있는 도자공예교육은 폭넓은 연령층의 관심 속에서 도자의 지식 및 상식의 확대와 감정의 교류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서 도자공예는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도자공예 수요자의 확대는 자연스레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1]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8월 1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9월 14일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일반 주부들의 관심을 끌어냄으로써 그들의 활동 반경을 가정에서 사회로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도자공예 교육은 그것이 교육으로서만 끝이 아닌, 상품으로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화생활의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눈높이를 맞추어줌으로써 전시장의 문턱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각종 행사의 참여도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화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것이다. 더욱더 좋은 문화란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1.2.1 연구방법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문화의 확산이 있어야 하며, 문화 확산의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으로서 도자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공예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수요자가 없는 예술의 역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문화의 수요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도자문화 교육에 대한 특징을 나열하여 공방운영에 발전을 주고 도자공예 및 도자공예문화에 활성화를 제시하려합니다.

1.2.2 연구 범위

평생교육으로서의 도자공예 교육은 현재 여기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자공예의 특성에서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도자공예가 교육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예교육은 기능적·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술교육은 창의력, 상상력에서뿐만 아니라 조형감각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많은 미술 분야 중에서 도자공예와 같은 입체 조형 활동은 평면 활동에 비해서 그 역할이 탁월하다 할 수 있다.

기능적·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예교육은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도를 가지고 작용한다. 흙을 만지는

순간부터 느끼는 손의 감각은 인간의 두뇌를 자극하여 감성(EQ, CQ)의 능력을 배가시켜준다. 또한 흙을 쌓아 올리거나 깎아주는 일련의 작업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균형감각과 조형감각 등은 이론적으로 습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이다.

둘째, 도예교육에는 문화성 및 사회성이 있다.

이 점은 특히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활동이나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관심 속에서 모인 타인과의 교류는 새로운 사회활동으로서의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성은 각각의 문화 활동과 밀접한 연계를 이루게 된다. 관심이나 호기심이라는 일차적인 단계가 정적인 활동이라 한다면, 이 감정과 더불어 참여라는 동적인 활동을 수반한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자공예는 교육의 보급 비율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도예교육은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점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도예교육에는 역사성이 있다.

도자 공예의 역사성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도예 교육 역사는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개인적인 면에서도 이 역사성은 개개인의 작품성이나 발전된 조형성, 그리고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만족감에서도 충족감을 준다. 교육 수용자의 이러한 만족감은 교육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도예교육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감정들은 각각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축적되어 쌓아지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힘을 길러주며, 이 힘은 바로 개개인의 교육 역사와 직결되며 개개인의 역사는 도예교육의 역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도예 교육은 개인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도예교육의 역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도자공예는 연령과 성별에 구애 받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기능의 연마와

미적 학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흙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삭막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연주의로의 체함을 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공예 교육은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한층 더 발전적인 교육매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1]

연구범위는 공예문화산업과 문화상품 마케팅이라는 자료집을 통한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자체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물론 개인적인 소견과 개인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논술하여서 정확한 근거로 한 자료는 아니지만 조사내용의 근거하여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2. 본론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다종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직업들은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소멸되기도 한다. 이런 직업적 관점에서 비춰볼 때, 공방(도예가)이라는 직업은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아마도 현대에 있어서 공방(도예가)이라는 직업은 개인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어떠한 편견이나 개인적 추측이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그 해답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는 실로 많은 기회와 자유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무한의 경쟁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적 가치라는 것이 결국 경제성 있는 직업만이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 스스로 사멸되는 시장경제 논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도예가라는 직업을 이 시대에 존재케 하는 것은 결국 도예가 스스로의 필요성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성만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 배척하는 극단적 논리만을 추구하는가?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면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란 냉정한 무한경쟁만을 요구하는 한편 극히 인간적 감성을 가진 형이상학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자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

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방(도예가)이라는 직업은 결국 도예가 스스로 만든 직업이지만 이 사회에는 필요한 공익적 직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방의 활성화 요건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 중에는 소위 자격증이나 증명서와 같은 사회적 인증이 필요한 직업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도예가가 과연 어떠한 자격으로 공방(도예가)이라는 직업적 명칭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공방(도예가)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도가 없는 지금은 그 자격을 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필자가 공방(도예가)라고 지칭하는 직업적 배경에는 사회적 자격에 관한 사항은 내포하지 않았으며 단지 아래와 같이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본다.

2.1 활성화 정책

앞에서 나타났듯이 공방(도예가)라는 직업은 그리 경제성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 직업 속에는 많은 매력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공방(도예가)들은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답변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적성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을 무시하고도 직업을 택하여 평생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공방(도예가)들은 경제적 성과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전업도예가로 남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정말 도예가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모든 공방(도예가)들이 자신을 갖고 전업도예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다만 도예가들이 경제적 자립에 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에 대한 대안을 두 가지 정도 기술하며 대안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 한다.

첫째- 수 공예적 생산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노력 공방(도예가)들은 많은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 1,000만원이하의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의 작업장에서는 500만원이하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극히 비생산적 시설과 과도한 장식으로 인한 비능률적 생산 방법이 원인인 것이다. 이는 작업실의 경제성과도 직결되는 요소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 하겠다. 실제도 작업시설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성형과 장식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변화를 준다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향상된 작품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적게 들기 마련이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있는 작품 판매는 공방이 보다 나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문량이 늘어날 것이고, 작업실에서는 늘어난 주문량으로 물류비용이나 제조비용을 절약하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는 작업실의 경제적 자립의 성패는 작품의 가격이 얼마나 높으나보다 작품을 팔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 판매처의 다양성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노력
우리는 흔히 작업실을 설립하면 공방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소수의 이웃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작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프로라는 생각을 겸해야 한다. 부끄럼이 많든지 작가의 자존심에서 오는 그릇된 이유에서 극히 제약적 판매처를 생각하는 소극적 경영 방법인 것이다. 만약 도예가를 자신의 직업이라 생각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판매처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말할 수 있겠다. 예로 필자가 만난 도예가 중에는 작업실 설립초기에 인근 아파트 5일장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했으며, 현재는 중견 작업실로 탄탄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도예가는 로드 마케팅을 통하여 상품의 테스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결국 도자공예란 대중의 관심 속에 발전하므로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자세가 발전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우리는 언제나 일품공예나 좋은 디자인만을 생각하며 작업한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전업도예가란 경쟁력 있는 공예나 경쟁력 있는 디자인까지 생각할 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2]

2.2 일본 도예공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일본 내의 경기불황은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도자기문화는 서민 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 음식문화의 특성과 도자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공방(도예가)들의 꾸준한 상품개발의 결과이다. 이렇듯 일본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으며 여러 곳에 도예교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골동품에서

비롯된 도자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다른 여러 나라보다 낫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자기 사랑은 일본 현대 도예가들의 활약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도자기 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층이 매우 두터워 일본의 현대도예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자기전문도매상은 크고 작은 규모의 무역회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업체가 국내 및 해외에 폭넓게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의 일본경기의 저조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의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좋은 그릇을 만드는 데에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많은 생각과 좋은 그릇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안목을 높이는 방법은 역시 많은 물건을 보는 것이다. 많은 물건을 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좋은 물건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본으로 그릇이 단순히 자신의 창작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조형물이 아니고 생활 속의 도구임을 잊지 말자. 기능적이면서 아름답고 현대의 정신을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그릇, 그것을 매일의 생활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무상의 기쁨이다.[4]

3.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에서의 도자공예 교육은 학구열이나, 수준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전문인 양성이 목적인 학교에서도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요즘에 들어와서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하고자하는 학교가 늘고는 있지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해마다 줄고 있는 학생 수가 그 결과로 지방의 몇몇 대학들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까지는 그 수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란 항상 양쪽 방향에서의 충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가 그것인데, 이 두 요소의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며,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다. 현

재 한국의 도자공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이 획일화되면 그 결과물들 - 공예 작품, 상품, 문화 등 - 역시 다양해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공예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초기 단계인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부터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교육 역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도자공예는 무궁무진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도자공예 교육이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의 구분과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성인 대상, 5세 이전의 영아 프로그램, 5-7세까지의 유아 대상, 청소년기 등이다. 이를 더욱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버층과 장애인 등 특수교육을 겨냥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노년 시기 및 장애인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절실하다. 또한 영아기의 프로그램 역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기는 대부분 혼자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하는 수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영아기에 할 수 있는 동작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영아가가 아닌 유아부에 오히려 적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순하면서도 조형적인 면에서도 소홀함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특정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길러야 한다.

현대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화되면서 치료가 필요한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전문화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학교교육 역시 그러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정한 상황일수록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 도자공예의 발전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필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시킴

으로써 더욱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가 초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대학교의 인기 학과는 취업 전망이 좋은 학과이다.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취업과 연결이 되질 않는다면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꺼려한다. 물론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취업이 안 된다는 의미는 바로 사회가 그것을 필요치 않는다는 의미로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무엇보다도 도자공예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교육기관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자공예문화의 실태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도자공예문화의 발전은 전문가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분야가 무엇이든지 그것의 발달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있다. 문화란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도자공예문화의 발전은 곧 도자공예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급자의 측면인 전문가들을 위해서든 수요자인 일반인들을 위해서든 도자공예의 교육은 꼭 있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현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지역적인 격차로 도자공예문화의 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역적인 소재개발, 인식부족, 인력부족, 지역적인 인프로 취약 등 지역의 도자공예문화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정책에서 모든 공예의 각각의 특성을 묶어주고 일관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층추적 뇌의 역할의 매개체가 없어 공예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과 같이 표로 공예 문화 파급효과 정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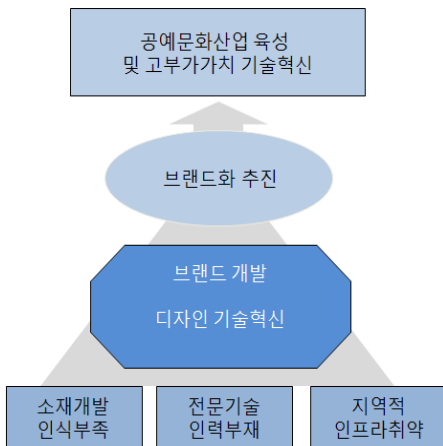
공예문화의 특화된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기술로 문화산업을 육성발전이 필요하다.

▶ 아이덴티티(정체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소재 발굴, 디자인, 신상품개발, 마케팅지원

▶ 소재특화를 통한 공예산업 연계 육성 필요

- 브랜드화로 아이덴티티 디자인 구축필요



따라서 디자인기술혁신, 신상품개발 및 마케팅과 브랜드개발로 인해 지역의 세계적인 도자공예문화의 지역적인 부가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도자공예문화교육의 준비된 정책은 바로 도자공예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2006), “국내공예문화관광상품제작·유통실태조사”
- [2] 서울산업대 산학협력단(2004), “국내공예문화관광상품제작 유통 실태조사”,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 [3] 황동열, 조명계(2006), “공예산업과 문화상품 마케팅”, (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공예총서2, pp.22-147
- [4] 이토오야스오, 저 이흥재(1995),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 [5]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2007), 공예산업실태조사 pp.21-77

김 성 민



- 1998년 2월 : 서울산업대학교산업대학원(산업공예학과 졸업)
- 2006년 4월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 정책
- E-MAIL : min3812@kongju.ac.kr